

민족문화와 청소년문화 정책의 방향

장 석 민*

- I. 문제의 제기
- II. 민족문화발전을 위한 청소년문화의 현황과 문제점
- III. 민족문화발전을 위한 청소년문화정책의 방향

I. 문제의 제기

주체성을 상실한 청소년문화의 확산에 대하여 최근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뉴키즈 소동으로 알려진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1992년 2월 미국의 팝그룹인 “뉴키즈 온 더 블록”의 내한 공연 당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보여준 반응은 가히 충격적인 것이었다. 공연으로 흥분한 청소년들이 기절하는가 하면, 떠밀려 30여명이 병원에 실려가고, 3시간씩 공연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외국가수에 대한 맹목적인 동경과 열광이란 점에서 뉴키즈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뉴키즈 사건 이전에도 이러한 증후는 있었다. 크리프 리차드, 레이프 가렛의 내한공

연에서도 이와같은 청소년들의 열광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었고, 뉴키즈 사건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뉴키즈 사건으로 대표되는 청소년들의 감정 폭발과 열광은 결코 일시적,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청소년들의 감정은 뉴키즈 이전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서태지와 아이들”의 공연을 통하여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와 같이 맹목적으로 열광하고 충동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행동을 하게 된 데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만든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에 대하여 깊이있게 파헤친 연구는 아직 없다. 다만 청소년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사회적 우려의 소리가 높을 뿐이다.

전통음악, 전통연극 등을 포함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흥분해 보았다는 기록과 사건은 아직없다.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감수성은 무던테 반하여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서구적 문화에 대하여 우리청소년들이 더 예민한 감수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뉴키즈 사건으로 대표되는 청소년문화가 우리사회에 던져주는 충격은 더욱 심각하다. 주체성 없는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뉴키즈 사건은 우연적 돌발적이라기 보다는 이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나타난 사건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우리의 전통문화 보다는 외래문화 특히 서구문화에 대하여 더 많이 익숙해지고 감수성이 개발된 탓이라고 생각된다.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우리의 전통문화 보다는 외래문화에 대하여, 그리고 정신적이고 지적인 문화보다는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문화에 더 익숙해지도록 만들고 있다. 청소년들이 접하고 있는 TV, 라디오, 비디오, 잡지문화가 바로 청소년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TV, 라디오, 비디오, 잡지는 오늘날 청소년들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핵을 이루고 있으며, 서구문화와 감각적 문화를 청소년들에게 전파하는 주요매개체가 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의 “문화예술 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1988)는 TV와 라디오의 연령별 선택프로그램 조사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연속극, 영화, 쇼, 코메디, 팝송, 대중가요 등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저급대중문화 프로그램에 선호경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디오나 영화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이 액션물, 무술, 성애물 등에 가장 많이 탐닉하고 있으며, 청소년 잡지에 있어서도 이러한 내용이 많으며, 외국 가수 및 연예계 소개 등 주로 감각적인 것이 많다.

청소년들이 공부하면서도 듣고 있는 FM 라

디오 음악프로는 대부분 외국의 팝송을 들려주고 있다. 청소년 잡지 또한 그러한 내용을 계속해서 담고 있다. 청소년들의 일상대화도 그러한 이야기 거리가 거의 전부라는 점을 많은 조사연구는 밝혀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뉴키즈 사건을 통하여 보여준 모습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광복이후 우리 손으로 우리문화를 가꾸어 온지도 40년이 넘었다. 그간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지만 그 나름대로 발전을 이룩하였다. 자립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문화선진국으로서의 국가위상을 세워나갈 시기가 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뉴키즈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구문화의 홍수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민족문화의 주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일제 35년간의 역사적 단절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문화 전통을 깊이 성찰할 여유도 갖지 못한 채 서구문화를 수용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또한 우리는 조상이 물려준 가난의 역사를 추방하기 위하여 해방이후 지금까지 간단없이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경제발전의 토대위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이룩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문화의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수용과 더불어 밀려들어온 서구문화의 위력은 우리의 주체의식을 잠시 마비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해방이후 40여년간 우리는 우리문화에 대한 성찰의 겨를도 갖지 못한 채 오직 경제발전과 서구문화의 수용에

온 힘을 기우리기에 바빴다. 일제 35년간의 역사적 단절 위에 수용된 서구문화의 홍수는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혼란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세계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금세기의 세계문화는 서구문화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서구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해 나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인식없이 남의 문화를 수용한다는 것은 자칫 문화적 식민지화 또는 노예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바르게 그리고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세계문화를 수용발전시킬 때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독특한 역할을 창조적으로 수행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발전적 시각에서 볼 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매우 수동적이었으며, 서구문화 지향적인 편파성을 드러내왔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반성을 하게 한다. 이러한 편파적 경향은 바로 잡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바르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발전 정책이 그러한 방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문화부가 신설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문화정책도 전통문화를 되살리고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광복이후 지금까지 서구문화의 홍수속에서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해 왔고, 이러한 사회적 맥락속에서 청소년 문화 또한 서구문화에 휩싸여 버리게 되었고, 특히 저급 유행문화에

오염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학교 또한 청소년들에게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르쳐 오지 못하였다. 서구의 문화와 합리주의는 체계적으로 가르쳐온 반면에 우리의 전통문화와 사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였다. 서구사회를 바탕으로 정립된 이론과 학문은 자세하게 소개한 반면에 우리 사회를 바탕으로 한 학문과 이론은 가르쳐 오지 못하였다. 우리 문화에 대한 주체적 인식과 학문발전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의 교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측면이 있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계속된 노력이 없이는 우리 문화의 발전도 불가능하고 주체성있는 청소년 문화의 선도도 가능하지 않으며, 주체성 있는 교육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해방이후 40여년 동안 우리 전통문화의 발굴 노력은 매우 부진하였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사실상 민족문화의 주체적 발전을 전제로 한 청소년 문화의 선도와 학교교육의 내실화도 부진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우리가 외래문화를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창조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의 바탕이 튼튼해야 한다. 전통문화의 토대위에서 민족 문화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외래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창조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문화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외래문화를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없게 되거나, 외래문화의 홍수에 의하여 전통이 파괴되고 사회적 혼돈이 초래되기도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전통문화를 되살리고 이를 토대로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 청소년문화정책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청소년이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갈 미래의 주인공이란 점에서 청소년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미래의 민족문화는 지금의 청소년들이 어떤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어떤 문화감각을 익히게 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문화정책은 미래의 민족문화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게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청소년문화정책은 거의 부재상태라고 말할 수 있으며 '뉴키즈'사건과 같은 소동이 벌어질 때마다 일과성으로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민족문화발전을 위한 청소년의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민족문화발전을 위한 청소년문화정책의 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 민족문화발전을 위한 청소년문화의 현황과 문제점

민족문화는 전통문화의 토대위에서 외래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전해 나간다. 청소년은 민족문화발전을 위한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문화감각을 형성해 나간다.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청소년기는 문화적 바탕을 형성하는 성장기로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시기에 어떤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어떻게 문화감각을 형성해 가고 있는가?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에 대한 감각을 어떻게 형성해 가고 있는가?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 문화 환경의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어떻게 문화감각을 형성해가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그러한 문화감각의 형성이 미래의 민족문화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외래문화의 수용자로서 청소년

교통수단의 발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국제화의 진전은 세계를 더욱 가까워지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래문화의 수용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이 되져 있던 우리나라도 서구문화를 적극 받아 드림으로서 이를 만회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합리주의와 과학기술의 우월성에 밀려 우리의 전통이 미신타파등의 물결과 함께 파괴되는가하면 전통문화가 경시되기도 하였다.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민족문화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가운데 서구문화가 홍수처럼 밀려들어 옴으로써 민족문화가 마비되고 혼돈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일제하에 강요된 왜색문화, 해방후 밀려온 서구문화는 전통문화의 계승을 어렵게 만들었고 우리문화의 주체성을 상실케 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속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무조건 서구적인 것을 받아드리고 모방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시대를 앞서가고 발전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서구의 합리주의와 과학기술이고, 청소년들이 자주 보는 영화와 연극도 대부분이 외국 것이고 TV, 라디오, 잡지들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화 매체도 서구적인 것 일색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속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은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감각보다는

오히려 서구문화적 감각을 더 체계적으로 형성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은 보다 쉽게 서구문화를 받아드리고 우리문화에 이를 접목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감각을 지니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듯이 그리고 민족문화의 주체 의식 없이 서구문화에 대한 감각만 갖게 된다면 이는 자칫 문화적 주체성을 상실케 하거나 국적 없는 혼돈된 문화를 만들어내게 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어느 나라든지 청소년들은 호기심이 많고 높은 감수성을 지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로서 외래문화를 먼저 받아드리고 사회에 전파하는 구실을 한다. 기성세대는 외래문화의 수용에 있어서 저항이 크며, 청소년들의 외래문화수용에 대하여도 비판적인 경우가 많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청소년들에 의하여 외래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측면이 있다.

외래문화의 수용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이와 같이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외래문화에 대한 감각을 형성시켜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서구의 저급 대중문화에 대한 감수성만을 사실상 키워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서구의 고급문화를 체계적으로 받아드리고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문화정책은 지금까지 부재한 반면 상업적인 메스컴이 저질문화만을 계속해서 청소년들에게 전파해 왔기 때문이다.

2. 문화상품의 소비자로서 청소년

우리나라는 소득수준과 여가시간면에서도 아직은 선진국에 미달되며, 문화를 즐기는 생활

도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문화상품은 청소년과 학생을 대상으로만 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화와 연극, TV와 라디오 프로그램도 대부분 청소년을 겨냥한 것이 많다. 잡지도 청소년을 상대로 한 것이 많다.

고급문화를 소재로 한 상품이나 프로그램은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다. 대상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 정부의 지원 정책도 거의 없으니 이러한 문화 프로그램이나 상품이 공급되기는 매우 어렵다.

흥행성 위주의 문화상품은 감각적이고 말초적이며 재미거리 중심으로 될 수 밖에 없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러한 문화상품의 소비자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로서 문화상품의 소비를 강요받고 있다. 청소년과 사회가 그와같이 감각적인 재미거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상품이 공급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청소년의 경우는 그들이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러한 취향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재미거리로 가볍게 접할 수 있는 문화상품도 때로는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상품을 일방적으로 반복해서 접해야 되는 경우 특히 충분한 비판력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문화상품들이 청소년들의 감각적 쾌락주의를 자극하고 계속해서 상업성만을 추구한다면 청소년들의 문화감각은 저질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전통문화의 계승자로서 청소년

전통문화는 우리문화의 뿌리이며 주체성의 원천이다. 전통문화의 계승없이 우리 문화의 정체성은 확인될 수 없으며 발전될 수 없다.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문화발전에 공헌하려면 다른 나라 문화와 구별되는 우리 민족 문화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보여주고, 그러한 바탕위에서 세계문화를 수용하고 창조적인 신문화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현대화의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우리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서구문화도 주체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가치혼란과 문화혼란 상태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게되고 나이가 들면 흔히 가문의 뿌리찾기가 시작된다. 국가의 경우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사회발전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게되면 민족문화의 뿌리찾기가 시작된다. 우리나라가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최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문화부가 신설된 이후 전통문화의 발굴 및 복원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외래문화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해진 반면 전통문화에 대한 애착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의식이 너무 강해지면 국수주의로 될 위험성도 있다.

청소년 및 학생들 간에도 최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를 배우려는 활동이 적극화되고 있다. 서구의 합리주의와 과학기술의 우월성에 밀려 우리의 전통과 관습이 한 때는 경시되었고 미신타파운동과 함께 파괴되기도 하였다. 우리의 전통과 문화 및 역사가 일제에 의하여 단절되고, 해방후 이를 복원하고 발굴하려는 능력과 노력도 부족하여 학교교육은 이를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속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은 전통문화에 대한 감각을 형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전통문화를 경시하는 태도를 배우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전통문화가 낯설기만 한 국적 없는 젊은이가 탄생되기도 하였다.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전통문화를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장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우리문화의 뿌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특히 문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층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청소년시기에 많은 청소년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익히게 되면 우리문화의 정체성은 이들에 의하여 보다 쉽게 확립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학습기회가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

4. 민족문화의 창조자로서 청소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젊은세대는 기존질서와 문화에 대하여 비판하고 도전하였다. 이러한 피기와 용기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기성세대는 기존문화를 고수하려하고 젊은세대를 비판한다. 기성세대가 강해지면 문화의 보수성이 커지고, 젊은세대가 강해지면 문화의 혁신성이 커진다. 양세력간의 균형된 상호작용이 있어야 민족문화가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

혁신세력은 정치 이데올로기에 너무 집착하여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었고, 기성세대는 젊은층으로부터 불신당함으로서, 우리나라는 혁신과 보수세력간의 조화로운 문화발전은 기하지 못한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민족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혁신과 보수의 조화를 기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청소년문화는 비행문화, 저항문화 등으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기성세대에 의하여 수용되지 못하였다. 기성세대

의 문화 또한 젊은층에 의하여 거부되어 왔다.

청소년문화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기존문화의 틀속으로 이를 받아드려 낡은 문화에 활기를 불어넣고, 전통문화를 새로운 감각으로 재창조해내는 젊은층의 혁신성을 인정하고 고무하는 기성세대의 포용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문화는 닫혀 있었으며 앞으로 보다 더 창조성과 개방성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청소년 및 젊은층의 왕성한 에너지, 기성문화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민족문화의 창조적 혁신 노력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유도가 있어야 한다.

III. 민족문화 발전을 위한 청소년문화 정책의 방향

앞에서는 민족문화발전의 토대로서 청소년문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해 보았다. 이러한 진단을 기초로 민족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 형성을 위한 몇가지 정책방향을 생각해 본다.

1.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는 청소년문화정책

전통문화를 복원 발굴하고 현대화하는 노력이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주로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이에 참여할 기회는 거의 없다. 청소년들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수집, 발굴, 복원, 현대화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감각을 형성하고, 전통문화를 체질화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각 지역별로 청소년단체 및 학교를 통하여 집단 또는 개인적으로 지역사회의 전통문화를 수집, 발굴, 복원, 현대화하는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의 추진은 전문가 및 자원인사의 지도하에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되 연구결과 발표를 위한 지역 및 전국대회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전통문화재의 보호운동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게하는 청소년문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민속놀이, 농악 등 청소년들이 전통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체계화함으로써 전통문화가 청소년문화활동의 주요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청소년문화정책을 장기적 안목에서 전통문화의 영역별로 지역별로 균형을 취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관련 중앙행정부처가 국가수준의 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각종 청소년단체 및 학교가 참여하여 지역별 기관별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확산 보급하기 위한 청소년문화정책

전통문화는 민속놀이, 민속경기, 전통음악, 미술 등 다양하다. 청소년들의 흥미도와 교육적인 내용을 조화시켜 여러가지의 형태로 프로그램화해서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각종 청소년단체 및 학교를 통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전통문화 보급 프로그램은 노래부르기, 연극, 강의, 놀이 등 다양하여야 하며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국가 차원에서라도 만들어서 보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 차원에서라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져도, 이를 적용할 문화공간이 부족하면 소용이 없다. 각종 청소년단체, 공공시설, 문화시설, 학교 등을 개방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 및 공간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외래문화의 주체적 수용을 위한 청소년문화정책

청소년들이 올바른 청소년문화를 정립해 나가고 민족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외래문화를 개방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들 스스로 그들의 문화의식과 행동방식을 비판해 보고 점진해 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족문화확조를 위한 청소년들의 위치와 역할을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외래문화의 수용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다.

세계문화속에서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문화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민족문화의 창조를 위해서 외래문화는 어떻게 수용하고 재창조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청소년들의 문화감각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외래문화를 비판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감각 형성과 의식화를 위하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런 문제에 관한 토론과 세미나를 자주 전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TV나 라디오를 통하여 청

소년들이 참여하여 이 문제에 관한 토론을 전개토록 하는 것은 그러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청소년단체의 지도 과정에서도 이러한 계도활동이 삼입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주체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청소년을 위한 문화상품의 질적 제고

청소년들에게 공급되는 많은 문화상품이 지나친 상업성의 추구로 저질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저급 대중문화가 그대로 청소년문화 상품으로 공급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고급문화상품이 좀더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극장, 영화관, 오락실, 체육관, 문화관 등이 좀더 많이 만들어지고 이를 위한 건전한 문화상품이 좀더 개발되어야 한다.

저질문화상품을 차단하고 건전한 고급문화상품을 개발토록 유도하는 문화정책이 좀더 실효성있게 수립되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채 저급문화상품의 피해자로서 전락해 가고 있다. 청소년문화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감각을 길러주기위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상품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육성시키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청소년을 위한 연극, 영화, 음악회 등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과 보조를 함으로써 문화상품의 고급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적 자극, 폭력 및 사행심을 부추기는 등 저질상품에 대하여는 단호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5. 전통문화에 대한 학교교육의 강화

청소년들이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

식하고 한국 국민답게 성장하려면 우리문화의 뿌리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교육은 전통문화의 교육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서양의 만화, 이야기, 영화와 더불어 서구적 합리주의와 과학을 배우며 자라나는 청소년의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인임을 느끼고 자각하게 하는 교육은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강조되어야 하며, 그것은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발굴, 복원, 현대화하는 연구와 학문적 업적이 촉진되고 누적될 때 전통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확대되고 그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전통문화의 연구는 좀더 확대되어야 하며 그러한 연구결과가 체계적으로 학교교육의 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교육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되살리고 보호하는 여러가지 교육적 활동 프로그램도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은 청소년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넓히고 문화적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에서의 전통문화 교육은 차체에 재검토되고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